

49세에 '품절남' 대열 합류... 62억 원 신혼집 눈길

김종국 가수

김종국이 속한 그룹 티보는 1995년 발매한 1집 앨범 '280km/h Speed'부터 큰 성공을 거둬 인기 그룹으로 떠올랐다. 이후 '나 어릴적 꿈' '검은 고양이' 'Love is' '어느 췌즈바' '회상'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인기를 얻었다.

1997년 멤버 김정남이 탈퇴한 후 래퍼 마이키를 영입해 2인조 활동을 이어갔으나 2001년 해체됐다. 2014년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의 특별기획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에서 김종국과 18년 만에 무대를 함께하며 복고 열풍의 주역이 됐다. 이를 계기로 2015년 12월 재결합을 발표하고 3인조 완전체로 14년 만에 화려하게 컴백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고음의 미성과 넓은 음역대의 가창력이 특징인 김종국은 2001년 솔로 가수로 데뷔해 '한 남자' '제자리 걸음' '사랑 스러워' 등 여러 히트곡을 불러 사랑받았다. 특히 2005년 '사랑 스러워'의 수록 앨범으로 연말 지상과 TV(MBC, KBS, SBS) 3사 가요대상을 휩쓸며 역대 다섯 번째 지상과 3사 가요대상 트리플 크라운의 주인공이 됐다.

이후 2012년 발매한 7집 '저니 홈(Journey Home)' 이후 2020년, 8년 만의 싱글곡 '지우고 아픈 사랑은...'으로 복귀했다. 이 곡은 겨울의 쓸쓸함과 어쿠스틱 사운드 가 주는 파스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정통 발라드로 아팠지만 소중했던 사랑의 감정과 기억을 잊지 않고 간직하며 살아가겠다는 절제된 슬픔을 담아 듣는 이의 심금을 울렸다.

가수 활동 외에도 2000년대 이후 'X맨' '패밀리가 떴다' '런닝맨' '미운 우리 새끼' 등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했으며 드라마 '프로듀사' 출연 등 연기에도 도전했다. 가요대상 3관왕에 이어 2020년과 2021년 SBS 연예대상 대상을 거머쥐며 승승장구했다.

연예계 대표 짝돌이로 물티슈를 빨아 쓰고 한여름에도 웬만하면 에어컨을 틀

지 않아 이러한 별칭을 얻었다. 짝돌이 모습을 보여주는 한 예로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해 모은 카페 물티슈를 자랑했는데 당시 하하의 "이런 것도 모으냐"는 말에 김종국은 "카페 가면 두 장씩 주지 않냐. 그러면 너네 버리냐. 안 버리잖아. 긴박할 때 쓸 일이 있을 거 아니냐"며 모으는 게 당연하다는 듯 답했다.

가요계와 연예계를 넘나

들며 두 분야 모두 최고 입지를 구축한 김종국이 49세에 결혼한다. 18일 자신의 팬카페 '피피투스'에



연합뉴스

자필 편지와 함께 "언젠가는 저도 이런 글을 써서 직접 올리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늘 마음속으로 준비는 해왔지만 막상 이렇게 글을 준비하다 보니 상상한 것 이상으로 많이 떨리게 긴장된다"며 "오랜 시간 늘 큰 힘이 돼 주신 팬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장기도 가고 인생에 새로운 도전을 또 하게 됐다. 더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김종국이 되겠다"고 했다.

결혼식은 다음 달 5일 서울 모처에서 가족, 친지, 일부 지인을 초대해 소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언론 발표에 앞서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 멤버들에게 미리 결혼 소식을 알렸는데 이 모습이 담긴 방송이 31일 전파를 탄다.

'런닝맨' 관계자는 "뜨거운 관심이 힘입어 해당 촬영분을 9월 방송하기로 했으나 시기를 앞당겼다"며 "김종국의 결혼 발표 부분만 일주일 앞당겨 31일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데뷔 30년 만의 신혼집이자 첫 집을 마련한 김종국은 올해 4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논현아펠바움2차(사진) 한 호실을 62억 원에 매입했다. 매입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신혼집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됐는데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

또한 곧 신혼이 될 그는 다음 달 20일, 21일 우리금융그룹이 개최하는 서울 난지한강공원 젊음의광장에서 '모이면 모일수록 선한 힘이 커지는 콘서트(우리 모모콘)'에 참여하며 활동을 이어간다.

20일 아티스트 라인업은 가수 경서, 데이브레이크, 정승환, 마크툼, 윤하, 에픽하이 등이다. 21일에는 김종국을 비롯해 치즈, 페퍼톤스, 우즈(WOODZ), 다이내믹듀오, 잔나비가 공연한다.

해당 호실은 공급면적 282.53㎡(약 85.46평), 전용면적 243.28㎡(약 73.59평)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아 전액 현금 매입으로 추정된다.

논현아펠바움2차는 3개동, 38가구의 고급빌라로 고급스러운 외관, 조용한 주거환경, 높은 보안 수준, 사생활 보장 등의 장점을 갖췄다.

단지 내 피트니스 클럽, 스크린 골프장 등 호텔급 커뮤니티시설이 있어 생활이 편리하고 가구별로 와인 창고 등 다용도 활용이 가능한 개별 창고와 가구당 지정 주차 3대를 비롯해 게스트 주차장도 추가 제공한다.

언주로와 학동로를 통해 외부로 차량이동이 용이하고 지하철 7호선 학동역까지 도보 10분 이면 접근할 수 있다. 수인분당선과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강남구청역, 9호선 언주역까지 걸어서 각각 13분과 15분에 도달할 수 있다. 또 9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오가는 선정릉역까지는 15분 걸린다.

학동초교를 비롯해 논현초교, 인북중, 영동고 등 각급 학교가 가깝고 대치동 학원가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신사동 가로수길 등 강남 주요 상권이 지근거리에 있고 코엑스 등 대형 쇼핑시설과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대형 병원이 인근에 있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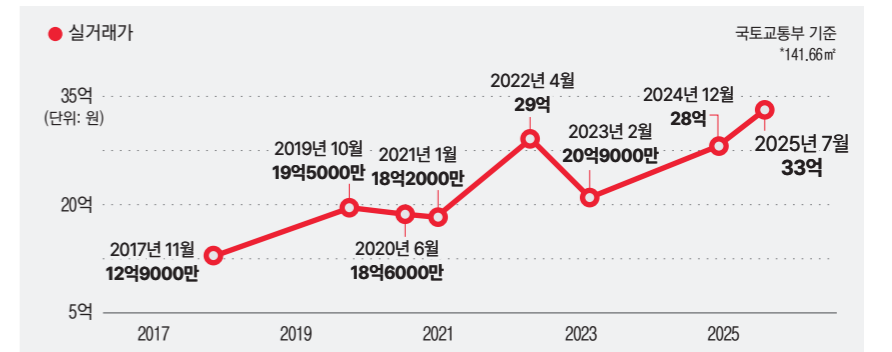
전·두산베어스 부회장



반 그룹의 구조조정,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등 그룹의 변인 역할을 통해 위기를 넘기는데 일조했다. 2005년 국내 대기업 사상 처음으로 홍보맨 출신 첫 사장으로 기록됐으며 같은 해 두산베어스 사장도 겸임했다.



동현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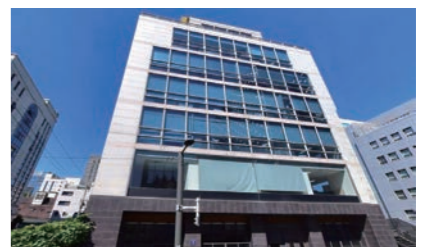
오봉석

현·동일건축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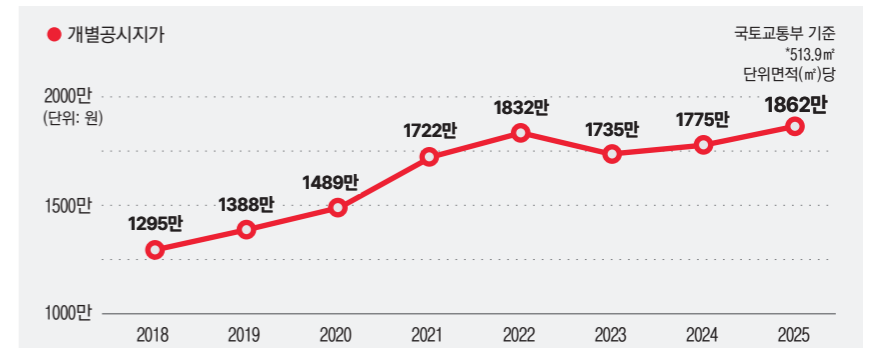


확고하고 글로벌 디자인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설계 능력의 고도화 및 세계화를 위해 해외파 디자인 본부장을 영입하며 시대 변화에 적극 부응, 글로벌 시장 선도에 나섰다. 2021년 건축산업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오봉석 동일건축 회장은 부산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 대학원에서 건축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부산시청 건축과, 대한주택공사에서 근무한 공무원 출신으로 종합건축회사인 동일건축을 설립해 시공과 설계, 사후관리 등 별개의 건축 과정이 대세였던 건축 시장에서 이를 종합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CM)사업 활성화에 기여했다. CM 기술 및 시스템 개발에 주력하면서 CM 체계가 국내에서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2012년 '2회 세계 CM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포장을 받았다. 오 회장은 선진 외국 기업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빌딩



새 희망을 심겠습니다

스카이드일리 임직원 일동

